

263장 이 세상 험하고

- 1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 쓰면 큰 권능 얻겠네
 - 2 주님의 권능은 한 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 3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 4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 후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렴 아멘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 1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 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 2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 3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 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 4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피로 값 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9월 19일(수) 기도 담당 : 홍광진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명자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262장 다 같 이
 기 도 김덕만 집사
 성 경 봉 독 창세기 26:13~33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 『속고 빼앗기고 쫓겨나는 삶에 숨은 축복』 · 이상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13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창세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9월 18일(화)	창 26:13~33	속고 빼앗기고 쫓겨나는 삶에 숨은 축복
9월 19일(수)	창 27:1~29	분별하지 못하고 내린 축복은 유효한가?
9월 20일(목)	창 27:30~46	보이지 않는 축복을 손에 쥔 결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9월 18일 (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에 실천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택한 백성들의 삶을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시어, 부모님들의 인생 말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영육간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신앙, 직장, 결혼, 출산의 일들을 친히 주관하셔서, 자녀들의 인생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가정 경제도 살피주셔서, 꾸러 가는 일 없고 꾸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요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겪는 각양각색의 곤고함들로 부터도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청년 선교사 언더우드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 새문안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131년의 유구한 역사동안 저희 새문안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이상학 담임목사님의 건강을 온전케 회복하셔서, 맡기신 귀한 사역을 새롭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후반부로 접어든 새성전의 건축현장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어, 안전하고 거룩하고 위엄넘치는 새성전으로 지어저가게 하옵소서. 영장리 추모관과 관계된 행정적인 난제들도 잘 마무리 되어, 새문안의 장례사역이 속히 안착되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명하신 하나님! 복음에 빛진 자인 저희 교회가 이방 각국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기꺼이 그 빛 갠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행하시는 사역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굽이굽이 고난으로 점철된 이 민족 역사에 놀랍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미련함과 방자함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전반에 부정적인 상황들을 도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핵을 쥐고 오만한 모습으로 버티는 북한의 지도부들의 간교함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 6만여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가 새롭게 깨어나 이 땅을 밝히는 등불 되게 하시며, 평화적 통일의 주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